

데스크시각



박 성 천 문화부장·편집국 부국장

"시와 아이들은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 공유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시를 쓰게 된 큰 이유는 세상의 아름다움에 대한 두근거림 때문이었습니다. 시로 표현하고 나면 그 두근거림이 해소되는 느낌이 들었죠. 아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이와 유사하지 않나 싶어요. 어떠한 열매임 없이 마음의 꿀벌에 따라 세상에 대해 감탄하고 그것을 놀이로 표현하지요."(김상조 시인)

우리문화 알리는 예술가들 열정

광주일보 '2024 꿈을 싣다' 기획시리즈에 소개되었던 김상조 시인, 강민지 발레리나. 최선의 기량을 연마하기 위해 묵묵히 창작과 연습에 매진하는 이들은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젊은 아티스트다. 김 시인은 대학에서

다시 시작한다, 2024년

유아교육을 전공한 이색적인 경력을 갖고 있다. 대부분 유아교육하면 여학생들 전공 분야로 생각되지만, 그는 꿈을 이루기 위해 '급급의 벽'을 깨고 유아교육과에 입학해 공부를 마쳤다. 유치원 교사와 시장작이라는 두 길을 향해 나아가는 그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감성을 지녔다. 최근에 네 번째 시집 '시 바람 느끼기'를 발간했는데, 공기가 주는 쾌활함과 청정함이 울 한해 문단을 향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얼마 전 강 발레리나는 한국발레협회 '신인 발레리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 해 동안 뛰어난 예술성과 기량을 선보인 신인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일상에 단 한 번 수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그는 시립발레단 여러 작품의 솔리스트 역할을 맡았는데 특히 'DIVINE', '지젤' 등에서 주연으로 활약하며 이름을 각인시켰다.

세계를 무대로 우리 문화 우수성을 알리는 예술가들의 열정도 감동과 자극을 준다.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의 에미상에서 8관왕을 거머쥔 넷플릭스 드라마 '성난 사람들'이 그 예다. 한국계 연출가, 작가, 배우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는데 주요 부문을 휩쓸었다. 작가상과 감독상을 수상한 이성진은 수상 소감에서 '처음 미국에 왔을 때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일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다'고 회고했다. 또한 그는 '작품 초반 등장인물의 자살 충동은 제 자신이 겪은 감정들을 녹여낸 것'이라고 밝혀 이목을 끌었다. 미인자의 어려움을 몸소 체험한 지난한 시간은 드라마에 역동성과 다양성 등을 부여하는 강한 촉매제가 됐을 것이다.

2024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월도 초순이 거의 지나가고 있다. 설날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걸 보면 '세월이 유수하고 같다'던 옛 어른들의 말

이 절로 실감이 된다. 비단 흐르는 것이 세월뿐이겠는가, 설 연휴를 비롯해 졸업 등 기념일이 많은 2월은 유독 빠르게 지나가는 느낌이다. 이 무렵이면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쯤해서 신년에 짚던 계획을 한번쯤 점검할 필요가 있다. 24절기 가운데 첫 번째 절기인 입춘(立春)이 며칠 전이었다. 사실 갑진년(甲辰年) 새해의 시작은 음력 설인 2월 10일이다. 올해는 육십 간의 41번째인 청룡의 해로 십이지 중 유일하게 상상의 동물이 바로 용이다. 예로부터 신성한 영물인 용은 물과 생명을 관장했다. 갑진년과 맞물려 용을 모티브로 한 사자성이어나 고사가 많이 인용된다.

느슨해진 마음 다잡는 용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말은 '시작은 좋으나 끝이 흐지부지하다'는 뜻을 담은 '용두사미(龍頭蛇尾)다. 어떤 일을 꾸준히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미인 텐데 동일한 의미의 '작심삼일(作心三日)'도 곧잘 회자된다. 올해는 관점을 달리해 비록 시작은 미흡했다더라도 점차 결실이 왕성해지는 '사두용미(蛇頭龍尾)'를 경지했으면 한다.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자가 승리자'라는 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언제고 기회가 닿으면 용이 승천하는 '비룡승천(飛龍乘雲)'을 탈 수 있기 때문이다. 갈무리를 잘 한다는 뜻의 '화룡점정(畫龍點睛)'을 실현하기 위해선 첫 마음, 초심(初心)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듯하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다. 설날을 기점으로 느슨해진 마음을 다잡아 보자. 신발 끈을 다시 묶는 것도 용기다.

은폐칼럼



고 성 희 시인

1988년 봄 광주시장실에 근무할 때였다. 평화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자와 추종자들이 부정선거를 획책했다며 현지 동장의 넥타이를 말고베쳐럼 칼고 시장실로 들어섰다. 절망했다. 지금의 민주당이 그때와 같다. 허청기동이 측근 기동을 흥분하고 상대의 잘못만 탓하는 민주당이 갈수록 막히는 길로 들어서고 있다.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탈당하자 민주당 국회의원 129명이 이낙연 전 대표와 같은 '부류'로 몰아 공개적으로 그들을 비난하고 나섰다. 소가 웃을 일이다.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지 않은 대표는 전 대표의 지역구를 물려받은 후 '방탄 국회'라는 비아냥거림 속에서 권리당원의 투표비율을 늘렸다.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지금껏 침묵하던 민주당에 '천명 경쟁'과 더불어 비명 뒷받에 진명 자객을 쫓는다는 흥흥한 소문까지 퍼진다. (원고를 보내려는데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한다는 뉴스가 됐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그런데도 내부의 불통과 모르쇠에 입을 다물고 있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당을 위한 충정어린 충고는커녕 옳은 말을 한 사람들을 비난하더니 잡으로 얻지 않는 일이다. 게다가 '광주·전남 선출직 공직자들'은 '김

몰락의 정치, 희망의 정치

대중 전 대통령은 '분열'이 아닌 '통합'의 길을 가라고 했다"면서 "작금의 상황은 김대중 정신과 어긋나는 길이며 민주당 정신을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상하지 않은가. 이런 상황이 오도록 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당내 다양한 의견을 통합하지 않고 방치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들만 모르면 말인가? 이게 다양성을 녹여 새로운 정책과 방향을 제시해야 할 공당의 옳은 자세란 말인가. 일관된 의회 민주주의 신봉자로서 자신을 죽이려한 박정희와 전두환까지도 협상의 상대로 인정한 김대중과, 우리 정치에서 가장 아름다운 헌신과 희생으로 새로운 정치 지평을 연 노무현의 당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역시 혁신은 없었다. 귀를 닫으니 마음의 문도 닫힌 것이다. 지금껏 꿀먹은 거짓말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온갖 멸칭 속에서도 혁신을 외치던 의원들을 기화는 이때다, 비난하는 것,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당시들은 무엇 때문에 동참하지 않았는가? '이재명 팔이'를 일삼았던 사람, 자칭 이재명 대표의 호위천사라고까지 했던 호남의 국회의원들을 알고 있다. 그 사람들의 그런 이유도 짐작한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별의 '헤어질 결심'으로 마음 아파하는 걸 보는 건 참으로 슬픈 일이다.

호남은 나라가 힘들 때마다 위기 극복에 앞장서 왔다. '약주호남'의 왜란 때도, 경술국치의 항일 의병 때도, 일제 강점기의 광주학생의거 때도. 불의를 참지 못하는 정신은 5·18 항쟁으로 이어졌고 결국 김대중과 노무현을 통해 민주주의의 성지라는 꽃을 피워 올렸다. 지금 호남의 정치는 무풍, 무답, 무망의 '3무'만 무

성하다. 인물도 비전도 정책도 없다. 이대로 가면 호남 정치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 것이다. 조현철 교수의 말대로 이재명 대표는 권리망의(貝利忘義)와 권리사의(貝利忘義)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호남의 정치인들은 사즉생과 생즉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것이 김대중 정신의 본질이고 김대중 같은 큰 정치를 시작하는 길이다. 노무현은 멋지게 진 아름다운 바보라서 호명되었고, 김대중의 이름은 다섯 번의 죽을 고비와 6년의 감옥생활, 두 차례의 망명과 55번의 가택연금에서 비롯되었다. '길 위에 김대중'을 봤는가? 그렇다면 헛웃음은 본 것이다. 제발 두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1988년의 그때 나는 평화민주당에 대한 배신감으로 사실관계를 담은 A4 용지 일곱 장의 고약한 편지를 썼고 그 때문인지 그 국회의원은 얼마 뒤 내게 악수를 청했다. 그저 반사적 이익만을 기다리다간 몰락만 있을 뿐이다. '한나평'(한동훈 나오면 평강)이라더니 겨우 한동훈의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정치판을 흔들고 있다. 2022년 관리재정적자는 117조였고 2023년은 67조, 올해는 92조에 이른다곤 한다. 민주당의는 극심하게 왜곡되었고 남북 간 긴장은 터질 듯 고조되었을 뿐 아니라 국가경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럽다. 희망의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한다.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다. 지금이라도 호남의 정치인들은 하나로 뭉쳐 구태와 악습을 혁파하여당을 구하라. 혁신 없이는 총선도 대선도 없다. 제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다 부러진 나무 등걸에 맞아 떨어질 수 없는 상처를 입지 않기를 간곡히 빈다.

社說

'준연동형 유지'... 위성정당 되풀이 안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2대 총선 비례 대표 선거 방식이 현행대로 '준연동형'으로 가닥을 잡았다.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게 선거 방식을 일임했고 이 대표가 그제 광주 방문에서 준연동형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어 어제 열린 의총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및 범야권 준연성당 창당 방침을 만장일치로 추진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선거 방식은 놓고 오래전부터 21대 이전 방식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및 범야권 준연성당 창당 방침을 만장일치로 추진했다. 47석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닌 21대 총선처럼 준연동형제로 선출하고 후속 작업으로 범야권과 함께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국민의미래'라는 당명을 정하고 위성정당 창당 준비까지 마친 상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선거 방식을 놓고 오래전부터 21대 이전 방식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및 범야권 준연성당 창당 방침을 만장일치로 추진했다. 47석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닌 21대 총선처럼 준연동형제로 선출하고 후속 작업으로 범야권과 함께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국민의미래'라는 당명을 정하고 위성정당 창당 준비까지 마친 상태다.

성이 더 높은 준연동형제를 선택할 것을 무작정 비판할 수는 없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위성정당 방지책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파기한 점은 실망스럽다. 민주당 의원 80여명이 위성정당 방지책을 공동 발의했는데도 입법화하지 못한 점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준연동형제는 원래 취지대로만 하면 비판 받을 일이 없다. 문제는 21대 총선처럼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한세워 의석을 차지한 뒤 합당하는 방식으로 의원 수를 늘렸기 때문이다. 당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한국당으로 17석과 19석을 확보해 전체 비례 47석 가운데 3개 군소 정당이 돌아간 의석은 11석에 불과했다.

이번에도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통해 의석 확보에만 전념한다면 차제에 선거 방식을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다. 준연동형제로 결정함과 비판이 예상됐다. '장고 끝에 악수'라는 평가도 있지만 소수 정당의 동원 가능

'포트 홀 천지' 광주시, 예산 타령만 할 건가

광주·전남 운전자들이 '포트 홀' (Pot hole·도로 파임)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도로 곳곳에 생긴 포트 홀 때문에 차량 파손 등 운전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4일까지 15일 동안 접수된 포트 홀 신고 건수는 2758건이다. 차량 파손 신고 건수는 218건으로 하루 평균 14.5건에 달한다. 지난해 폭설 후 포트 홀이 대량 발생했다.

운전자들은 포트 홀 때문에 타이어가 찢겨지거나 휠이 부서지는 등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사고 이후에 광주시와 각 지자체,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관리 주체로부터 충분한 피해 보상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때문에 100%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데다 운전자자 자신의 피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속도로와

국도, 일반 도로 등 어디에서 사고가 났는지에 따라 보상 신청 접수처도 달라진다.

포트 홀은 주로 노후한 도로에서 발생한다. 광주시의 노후 도로 관련 예산은 연간 45억여 원 규모다. 광주시가 관리하는 378개 노선 597km 가운데 연간 50km를 보수할 수 있는 예산으로 전체의 8.4%에 불과하다. 전체 도로를 6년 만에 재포장하려면 연간 600억~700억 원이 투입돼야 한다.

누구나 주행 중에 예기치않은 포트 홀에 당황한 경험이 한번쯤 있을 것이다. 더욱이 야간 운전 때는 사전에 포트 홀을 알리지 못하고 서지 않지. 제한속도 이내로 달린다고 해도 차량파손 등 사고를 피할 수 없다. 광주시와 각 지자체 등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도로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광주·전남 사·도민의 안전 운행을 위해 도로 순찰과 포트 홀 도로 응급 보수 등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無等鼓

설은 음력으로 한 해가 시작되는 새해 새달의 첫날이자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이라고 할 수 있다. 설은 또 원일(元日)·원단(元旦)·원신(元新)·정조(正朔)·세수(歲首)·세초(歲初)·연두(年頭)·연수(年首)·연시(年始)라고도 하는데, 이 역시 한 해의 첫날을 뜻하는 말이다.

한편에선 설을 나이를 헤아리는 말로 사용하기도 한다. 해가 바뀌어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는 첫날인 설을 설 때마다 한 살씩 더 먹고, 설을 쇠는 횟수에 따라 사람의 나이도 들어간다는

설이란 용어 자체는 정월 초하룻날, 하루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실제 설 명절은 하루에 그치지 않으며 대보름까지 이어지는 게 일상이었다.

그래서 설을 설 명절이라고 해서 중요하게 여겼으며 많은 세시풍속이 곳곳에서 열렸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은 설에는 차례상을 차리고 세배하며 떡국을 먹는 풍속이 있었으며, 정월 보름엔 한 해 행안을 위해 연날리기와 달집태우기를 하고 오곡밥과 귀밝이술, 부럼 깨기 등으로 건강을 기원했다.

이치다. 결국 '설'이 사람의 나이를 헤아리는 단위로 정착해 오늘날

문화재청이 지난해말 가족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눠 먹고 조상에 대해

'살'로 바뀌었다는 것이 어린 연구자들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새해 첫 달의 첫 날, 첫 번째인 '설'에서 착안해 아직 낯설어서 '설다'와 '낯설다'라는 말이 나왔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는데 설덕력이 있어 보인다.

한 예를 올리던 설과 추석 등 '명절'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설과 대보름, 한식, 단오 등 5개 명절을 국가무형문화재(5월부터 국가무형유산으로 통용)로 관리하게 되는데 이번 설 명절이 시작된 셈이다. 옛 풍습이 꼭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국가가 유산으로 지정하고 소중한 가치로 이어가려는 이유가 있는 만큼, 취지에 맞춰 즐거움 마음으로 쇠길 바란다.

/김대성 제2사회부장 bigkim@

설 명절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김汝政,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address and phone numbers.

기 고



윤 정 옥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의약분업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위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에도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국민 곁을 지켜왔다.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해 당기 흑자를 기록하면서 3년 연속 흑자를 이끌어냈으나 글로벌 경기침체, 저출산·고령화 등 인한 생산인구 감소, 초고령사회 도달 등으로 향후 재정 불확실성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도, 국민들 지갑을 여는 보험료 인상도 더 이상 재정 안정을 위한 근본적 해답은 아니다. 공단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야 하는 상황으로 새어나가는 돈이 없는지 점검하고 지출을 효율화하는 등 곳간 단속이 필요하다.

불법 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 또는 비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리거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약국을 말한다. 큰 인명피해(사망자 47명, 부상자 112명)를 초래한 밀양세종병원이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전형적인 예로, 특정 의약품 처방 유도 및 항생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제언

제·수면제 과다 처방 등 의약품 오남용, 과밀병상 운영 등 영리추구에만 몰두하여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각종 위법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불법 개설기관으로 인한 누적 피해액은 2009년부터 약 3조 4000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 징수한 금액은 2335억 원으로 징수율은 6.9%(2023년 12월말 기준)에 불과하다. 연간 사무장병원으로 지급된 급여비는 2000억 원 이상이다. 공단은 불법 개설기관 적발을 위해 지자체 등과 함께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체납자에 대한 실거주지 추적 조사 등 현장 징수를 강화하고 있으나 환수 대상자 중 무재산자가 70%에 달하고, 유재산자도 환수 가능한 재산이 많지 않다.

불법 개설기관 징수를 어렵게 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첫째, 공단은 수사권이 없어 계좌 추적 불가로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 운영 성과에 대한 귀속 여부를 자금 흐름을 통해 밝혀야 하나 수사권 부재로 자금 추적이 불가하다. 또한 방조자·참고인 등 관련자 직접 조사도 어렵다.

둘째,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수사 기간이 길다. 일선 경찰, 정부·지자체 특사경은 전문수사 인력 부족, 타사건 우선 수사, 불법 개설기관 수사 전문성 부족 등으로 수사가 장기화 되어 수사 의뢰 후 수사 결과를 확보하기 까지는 평균 11.5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 점을 악용하여 부당이익 환수 시점에 중여, 허위매매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도 많다.

그럼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

도입은 왜 필요한가. 전문성 측면에서, 공단은 사무장병원 조사에 특화된 전문인력(55명)과 조사 경험자(200여 명)가 활동중이다. 심 수년간 풍부한 노하우를 축적한 공단 직원들이 지자체에서 불법 개설기관 수사 전문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개설 의심기관 분석시스템(BMS)'을 구축하여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활용하고 있다.

긴급성 측면에서, 불법개설 행위에 대한 신속한 증거 확보도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법 개설 행위의 예방 및 수급자인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 기간 단축이 절실하다. 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될 경우 수사 기간이 3개월 이내로 단축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의료계에서는 특사경 도입시 해당 수사 권한을 일반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 조사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을 우려해, 경찰력 비대화 및 상시 감시와 통제 이유로 공단의 특사경 도입에 반대를 하고 있다.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일반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 조사까지의 수사 권한 확대 적용은 공단에 특사경이 부여되더라도, 사무장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 개설의 범죄 행위만 수사할 수 있게 법제화하고, 복지부장관이 특사경 추천권을 행사하게 하여 수사권 오남용을 방지하면 된다.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소중히 지켜내면서, 사무장병원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고 재정 누수를 방지하여 보장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